

세월호 국조 요구서 27일 본회의 처리

여야, 5월국회 일정 합의 특검·국감 6월이후 논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서와 하반기 원구성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김영록 의원이 밝혔다. 이를 위해 양당은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한 오는 20일 본회의에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하고 20일과 2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의를

를 진행,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상설특위위원장 선거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삼임위 차원에서만 일부 진행돼 오던 '세월호 국회'가 오는 19일부터는 전방위적으로 열리게 됐다.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가 27일 이뤄지는 만큼 실질적인 국정조사는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6월 초부터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국정특위 구성과 국조 시기, 청문회, 조사범위 등을 놓고 각론에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특검과 6월 국정감사에 대한 논의는 일단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국조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왜곡됐을 때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서 "우선 국조에 임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국감에 대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상당한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 문제는 아직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번 참사의 원인과 사고수습 문제점, 유가족·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질의와 추궁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오는 27일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를 하기로 함에 따라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하지 못해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던 '국회의장단 공백 사태'를 이번에는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잘해 봅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부터),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국회 국민당에서 5월국회 합의를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준·박원순 진도 방문 ‘극과 극’

정, 유족 항의에 자리 떠...박, 실종자 가족들과 눈물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인 진도가 정당과 지역을 떠나 6·4지방선거 유력 후보자의 방문코스가 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박원순 후보는 지난 14일 세월호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 등을 위로했다. 진도는 서울시장에 나서는 두 후보의 선거와는 상관없는 지역이지만, 세월호 사고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식 후보 등록에 앞서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도를 먼저 방문한 후보는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였다. 정 후보는 14일 오후 6시 15분께 진도 팽목항에 도착해 수행원들과

함께 수색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정 후보를 맞이하는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 후보의 막내아들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는 발언을 한 탓이다.

실제 정 후보가 가족대책본부 전막에 들어서려고 하자 유가족들이 "가족이 아니면 들어가지 말라"며 분노해 자리를 떠야 했다.

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금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30여분 간의 팽목

항 방문을 마치고 오후 7시 30분께 서울로 향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은 방문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날 오후 8시 45분께 진도실내체육관에 도착한 박 후보는 실종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했다. 박 후보는 "남아있는 분들이 더 힘낼 것 같다"며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봉사자와 구조당국 관계자 등도 격려했다.

박 후보는 체육관 한 쪽에 걸린 야구 유니폼이 실종된 단원과 학생이 두산의 팬이라는 이야기를 접한 구단 측에서 학생의 이름을 넣어 전달한 것이라는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후보는 한 시간 가까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팽목항으로 떠났다. 뒤늦게 방문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박 후보는 끝내 사양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

강운태, 시민 1천명 선대위 출범식 성황

강운태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는 15일 광주 서구 마북동에서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운태 시민후보 사무소 개소식 및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강 후보는 이날 박선홍, 문병란 등 4명의 지역원로를 포함해 각 분야 대표 40명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정희 변호사를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위촉했다.



이낙연, 6억 규모 선거자금 펀드 출시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는 15일 깨끗한 선거운동과 투명한 선거자금을 위한 '혁신전남 펀드'(이하 '이낙연 펀드')를 출시했다. 이 후보는 "도민들과 함께하는 깨끗한 선거운동을 치르기 위해 전남도지사 선거비용 상한액인 13억 7900만원의 중 6억원을 도민펀드로 조성하고 선거가 끝난 뒤 되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진선기 '구청장 월급 전액 사회환원'

진선기 무소속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15일 "구청장월급 전액과 4년 해외연수비 전액을 북구 복지예산으로 반납하는 등 사회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북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복지소의게우가 많다"면서 "월급 등을 전액 기탁해 복지기금모금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저소득층 서민의 복지예산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승규 '구태정치 실망, 무소속 출마'

김승규 신안군수 후보는 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새정치를 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선 심사과정에서 새정치에 부합하지 못한 구태정치를 하고 있어 큰 실망을 해 탈당하게 됐다"며 "새 정치를 희망하는 신안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정치혁신과 선거개혁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염동의 '패권적 독선과 불의에 맞서겠다'

염동의 광주시 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를 떠나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염 후보는 "공천과정에 참여하고 지켜보면서 당원의 권리는 완벽하게 무시되고, 무원칙과 무능력, 음습한 패권주의가 판치는 지옥을 경험했다"며 "새정치란 이름의 패권적 오만과 독선, 불의에 맞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안철수 5월광주에 올 자격 없다"

이용섭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통합신당 정강정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산 역사인 6·15 선언, 10·4 선언, 4·19 혁명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던 안철수 대표는 5월 광주에 발을 디딜 자격이 없다"면서 "5·18을 단순히 소모적 논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안철수 역사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중효, 내일 순천서 선거사무실 개소식

이중효 새누리당 전남지사 후보는 17일 순천시조은프라자 1층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는다. 이 후보는 개소식에서 미래형 농업정책, 기업유치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개소식을 앞두고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 300만평의 산단을 조성, 기업에게 50년간 무상임대하는 등의 전략으로 기업을 적극 유치해 잘사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호경 "인구 5만 화순시 승격 실현"

임호경 무소속 화순군수 후보는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인구 5만 도농복합 화순시' 승격 추진 등 주요 공약을 공표했다. 제40대 화순군수와 민주당 화순상임부위원장·전남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지난 10여년간 군수 선거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화순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성, 영광군수 무소속 출마키로

김준성 영광군수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김 후보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뜻이 왜곡되고 무시당하는 것은 새정치일 수 없다"며 "군민계 직접 의사를 묻기 위해 무소속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일 "여성 전략공천, 측근공천 전략"

권용일 광주시 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는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 제6대 남구의회 의장을 지낸 권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지역 여성전략공천은 그 취지와 목표는 간데없고 오히려 구시대 정치인만 부활시킨 월척도 전략도 없는 측근공천에 불과했다. 남구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고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고송 선거차량 UCC로고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NAVER **단비플라워**

죽화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